

#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 포천시립합창단 21일 오후7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음악회가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열린다. 포천시립합창단은 21일 오후 7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사랑

과 감사'를 주제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백경현의 지휘와 손수연의 반주로 우리가곡과 클래식 합창, 중창, 동요메들리, 클라리넷 소나타 등으로 꾸며지며 클라리넷에 박정환, 플루트에 허미

연이 특별 출연한다. 또 청백어린이 합창단(지휘 양태원 반주 이민상)이 출연해 동요와 외국민요 등을 부른다. 공연 후에는 관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머니 은혜를 합창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지역시민들을 위한 무료공연으로 공연시간은 90분이며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다. 예약은 없고 당일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포천시립합창단은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한때합창단이 모태가 돼 지난해 10월 창단됐으며 30여명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가족이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 포천 시민이 공유하는 합창음악, 희노애락의 삶을 함께 느끼며 사랑을 전하는 합창음악,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즐겨 찾는 합창 공연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3)

## 탭댄스의 유래

미국 사회에서 20세기초에 유행했던 탭댄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빠른 발 동작과 분절된 리듬의 음이다.

탭댄스의 기원은 19세기 남부 농장 지역의 흑인 노예들이다. 탭댄스는 이후 1930년대 영화에 등장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이때 sing in the rain의 진 켈리가 등장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누렸다.

50 중엽에는 유럽의 농민들 사이에 발이 매우 빠르고 양손을 옆구리에 댄 채 발끝과 뒷굽만으로 추는 지그댄스라는 춤이 유행하였다.

지금도 보여지는 마이클 프랫틀리의 로드 오브 탭댄스 라는 탭공연과 같은 것으로 마치 북을 치듯 리드미컬한 소리가 압권이다.

중세의 산업혁명 때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자들이 발끝과 뒷굽에 단단한 나무 판자를 오려 붙였는데 이것을 크로그라 불렀다.

날이 추워지면서 당연히 발을 구르게 되었고 이런 움직임이 흥미있게 변화되어 작업을 할 때나 공장 밖 또는 거리에서도 춤을 즐기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어 등장한 것이 영국 민속무용의 시초가 되는 크로그댄스이다.

지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탭덕스(호주 탭댄스팀)의 작품은 철공소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 탭을 하는 것을 소재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문화의 세기적 흐름으로 스텝도 복잡하게 구성된다.

또한 산업의 개발로 인해 19C 초엽에는 나무 밀창 뿐 아니라 보다 부드러운 가죽 밀창이 등장한다.

그 가죽 밀창에 동전을 나사로 부착시키게 된 것이 새로운 탭슈즈의 변형을 가져다준다.

그 이후 탭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음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금속으로 만들어진 많은 '탭징'이 개발된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노예선 갑판 위에는 미국인 승무원들과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서로 춤을 추게 되는데 이때 아프리카의 토속적 리듬과 아직은 형식이 덜 잡힌 미국 춤의 리듬이 섞이게 된다.

흑인 노예들은 늘 백인들의 잔치에 여흥을 돋구어야 했고

백인들은 그 값으로 케익을 나누어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일 독특한 스텝으로 한 쌍의 남녀가 춤을 추는 케익워크가 되었다.

19C 중반에는 뉴욕시가 개최하는 백인과 흑인과의 댄스 경연대회가 열려 춤의 열기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또한 미국으로 건너 온 독일인들이 크로크 댄스와 많은 왈츠 스텝을 유입시키며 문화의 융합시장이던 미국에 3/4 박자의 왈츠 크로크 스텝들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앞으로 박자에 맞추어 견계되는 새로운 스텝 댄스로서의 시초가 된다.

남북 전쟁으로 한때 탭댄스 파티는 시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탭은 계속 발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미국의 연예인들이 더욱 가볍고 단단한 밀창의 구두를 신고 춤을 추며 그 흐름을 이어간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부터는 관객의 새로운 취향에 부합하고자 많은 경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보드빌(음악이 있는 짧은 희극)이 출현하게 된다.

또 하나 민스트럴이라는 음악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전문위원

시인들이 고향을 그리며 불러대는 일종의 우리나라 통가타 수 같은 이들이 등장한다.

보드빌과 민스트럴을 통해 많은 노래와 연기, 댄스 등이 선보이게 되고 수많은 배우들은 더욱 강렬하고 자극적인 구상을 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탭댄스도 더욱 현란해지기 시작한다.

흑인들은 백인들의 보드빌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1차 대전이 지난 후부터는 모임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의 인기는 최고를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탭댄스로 그 기량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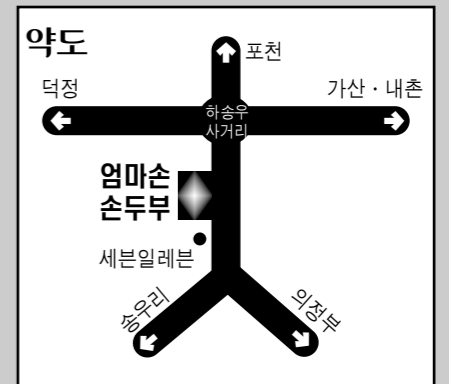
연구는 계속되어 아프리카의 리듬을 도입한 최초의 아메리칸 탭댄스라 할 수 있을(백댄스인)이라는 춤이 선보이게 된다.



## 양질의 재료선정으로 담백함을 자랑하며 건강까지 고려한 “엄마손 순두부”가 함께 합니다.



- #메뉴
- 순두부 : ₩5,000
- 모두부 : ₩5,000
- 두부김치 : ₩6,000
- 도토리묵 : ₩8,000
- 흥어무침 : ₩10,000
- 묵밥 : ₩5,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3-2 문의 · 예약 : 031)541-2332 대표 : 김인태

###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 서양화 작가 '강구원'



△ 서양화 작가 강구원

“첫번째 개인전은 죽은 자를 위한 음악인 레퀴엠을 통해 80년대 치열했던 민중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89년 한성갤러리에서 첫 전시회 이후 모두 8번의 전시회를 통해 ‘우연의 지배’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품세계를 펼쳐온 강구원 작가(사진.48)의 말이다.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351번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14년째 전업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강 작가를 송우리 검정고무신 카페에서 만났다.

요즘 사람들의 생활은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직·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천이 변하고 있다. 반월아트홀이 개관된 이후 전시공간이 확보되었다. 이곳을 잘 활용하여 포천시민과 작품으로 만나고 싶은 게 강 작가의 바람이다. 또 그림을 통한 소통의 심리를 표현하고 싶다. 너무나도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복잡한 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 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누구나 계기가 필요하다.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친구가 드보르작의 세레나데를 즐겨 듣는다면 남자친구로서 이 음악을

## 포천에서 14년째 작품활동에 몰두

‘우연의 지배’는 필연이다.

심초석은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일생동안 하나의 주제로 작품활동을 펼쳐 보고 싶습니다. 우연의 지배는 생명의 외경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연속에는 반드시 필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필연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은 바로 이것이다. 느릿한 전남 고흥 사투리가 친근함을 더해주는 말투에서도 순박한 농심과 같은 작가의 심성을 읽게 된다.

‘우연의 지배 사원의 뜰에서’라는 작품을 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소개한다.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등장한다. 바로 ‘돌’이다. 돌은 탐을 연상케 한다. 영겁의 시간속에서 비바람에 노출된 공간에서도 보존되는 뜰에게서 생명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컴퓨터 기억칩의 소재가 바로 돌이라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강 작가는 또 돌 중에서도 주춧돌을 최고의 돌로 인정한다. 기둥을 세우지 않은 마음의 초석을 심초석이라고 한다. 황룡사4층석탑의 중앙에는 큰 돌이 기둥없이 한가운데 존재한다. 기둥이 없어도 그 탑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심초석이다. 심초석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이 돌을 통한 우연의 지배가 작품을 통해 시작된다. 인간이 조금이나마 자연과 하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위한 돌의 존재가 치에서 우연의 지배는 바로 필연으로 연결된다.

작가는 서양화라는 도구를 선택했다. 그러나 음악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음악을 듣고 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감동이 기억속에 남아 다시 연주된다. 미술작품 또한 마찬가지다. 작품 속에서 음악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수 있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강 작가는 교육심리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

구입해서 듣게 된다. 이로써 이 남자가 훌륭한 음악 매니아나 전문 음악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런 계기를 자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전시회장에 나가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화랑에서도 사진촬영을 허락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꺼내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요구하는 강 작가에게서 우연의 지배라는 작품세계가 결코 우연이 형성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개인전 8회
- ▶제2청사개관기념초대전(의정부)
- ▶현대미술초대전(의정부예술의전당)
- ▶일일회전(경인미술관)
- ▶경기북부작가전(의정부예술의전당)
- ▶의정부현대미술작가회전(의정부예술의전당)
- ▶드로잉전(갤러리 리즈)
- ▶현대회화의 이미지전(조형갤러리)
- ▶경기북부 100인초대전(제2청사)
- ▶포천반월아트홀개관기념초대전
- ▶빛과소리의 영상·조형물제작(민락중학교)
- ▶심전(포천미술)
-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351
- 031-544-5731



우연의 지배-탑